

아수라환탈타



기획의도

6500만년 전 멸종해 버린 공룡의 흔적이 남아있는 해남군 황산면.

옥매광산을 품고 1980년대까지 옥공예품으로 번창했던 해남군 황산면 옥동리. 수많은 아이들이 사라져 2011년 폐교가 된 해남군 황산면 옥동리 옥동초등학교.

지역 소멸의 시대,

새롭게 청년마을 농농길의 거점공간으로 재탄생할 옛 옥동초등학교에서 모든 사라져 간 것들을 기억하는 전시와 축제를 엮는다. 예술인들이 일주일간 옥동초등학교에 모여 사라져버린 것, 소멸해가는 것-유형의 물건, 무형의 감정이나 제도, 규칙 등 무엇이든

-을 주제로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만들어 전시하고 일부 작품은 태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전시를 통해 모든 사라진 것들, 소멸해 가고 있는 것들을 지금, 여기로 다시 불러내 추억하고 작품을 태우는 퍼포먼스를 통해 과거의 아픈 기억과 묵은 기운을 정화하고

앞으로 이어나갈 것들의 새로운 부활을 함께 기원하고자 합니다.

땅끝마을 해남에서 열리는 '아수라활활타' 예술인 캠프에 참여하실 예술인을 모집합니다!

- 아수라 활활타는 여러분의 생각과 작품을 다양한 예술인과 문화예술 향유자들에게 소개하는 장입니다.
- 예술의 혼을 불태우고, 작품의 탄생과 소멸 과정을 공유하고 싶은 아티스트를 초대합니다.
- 지역 소멸의 시대, 시골재생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해남군 황산면 옛 옥동초등학교에서 모든 사라져 간 것들을 기억하는 전시와 축제를 엮는다.
- 예술인들이 일주일간 옥동초등학교에 모여 사라져버린 것, 소멸해가는 것-유형의 물건, 무형의 감정이나 제도, 규칙 등 무엇이든-을 주제로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만들어 전시하고 일부 작품은 태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전시를 통해 모든 사라진 것들, 소멸해 가고 있는 것들을 지금, 여기로 다시 불러내 추억하고 작품을 태우는 퍼포먼스를 통해 과거의 아픈 기억과 묵은 기운을 정화하고 앞으로 이어나갈 것들의 새로운 부활을 함께 기원하고자 합니다.
- 주최측은 예술인 캠프 진행, 숙식 제공(캠핑), 전시활동 등을 지원합니다.여러분은 설치미술부터 행위 예술까지 어떤 작품이든 전시하실 수 있습니다.
- 따스한 봄날, 해남에서 동료 예술인들과 만나 영감을 받으며 장르에 제한 없이 모든 경계를 넘나드는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



해남군 황산면 옥동리 920 (구 옥동초등학교)
소나무숲길을 간직한 오래된 학교의 건물과 숲 전체를 사용합니다.

일



단기 레지던시 캠프 : 4/27(토) - 5/5(일) 작품 제작, 설치 및 마을/참가자 간 교류 프로그램 진행
전시 : 5/4(토) - 5/31(금)
축제 : 5/5(일)

모집대상

'아수라활활타'의 캠프에 참여하고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고자 하는 예술인(팀)

모집규모

10팀 내외 (선정된 팀의 가족, 친구들과 동반 참여 가능)
4/27(토)-5/5(일) 전체 일정 참가 가능 팀 우선 선발

숙

박

소나무 숲/교실 내 캠핑(선택 가능, 팀 별 배정) 학교 내 공용 화장실 및 샤워장 이용 가능

식

사

함께 만들어 나누는 공동체 식사 또는 마을 내 식당에서 이용 가능한 쿠폰 제공(1일 3식, 1식: 8,000원)

혜

택

신규 작품 재료비 및 기존 작품 운반비 실비 최대 200만원 지원 (작가 직접 수령은 불가능하며, 세금 계산서/카드결제 가능 비용만 지원 가능합니다.
직접 운반시 주유/교통비로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선정된 팀에게 숙박(교실 내 캠핑) 및 다양한 캠프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공간소개

해남군 황산면 옥동리 920에 위치한 (구) 옥동초등학교는 1920년에 개교, 2011년에 폐교한 곳으로

사진에 보이는 본관과 별관, 그리고 넓은 소나무숲으로 이뤄져있습니다.

캠프참가자를 위해 본관을 개방하여 2층의 7개 교실을 숙박동으로 활용하고, 1층 7개 교실에 전시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공간소개

1, 2층의 교실은 1개실을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크기로
가로 4.5m*세로 10m, 13.6평의 크기입니다.

폐교가 된 후 학생수련원(해남 학생의 집)으로
사용된 적이 있어 바닥에는 마루가 깔려있어요.

자연채광이 스르륵 내려오는 교실 내부에는 별도의
커튼이나 전시용 조명기구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전기와 수도 사용이 가능하고, 냉난방기는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공간소개

본관 1층에는 남/녀가 분리된 두 개의 샤워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미사용했던 만큼, 여러분이 오시기 전에 청소와 온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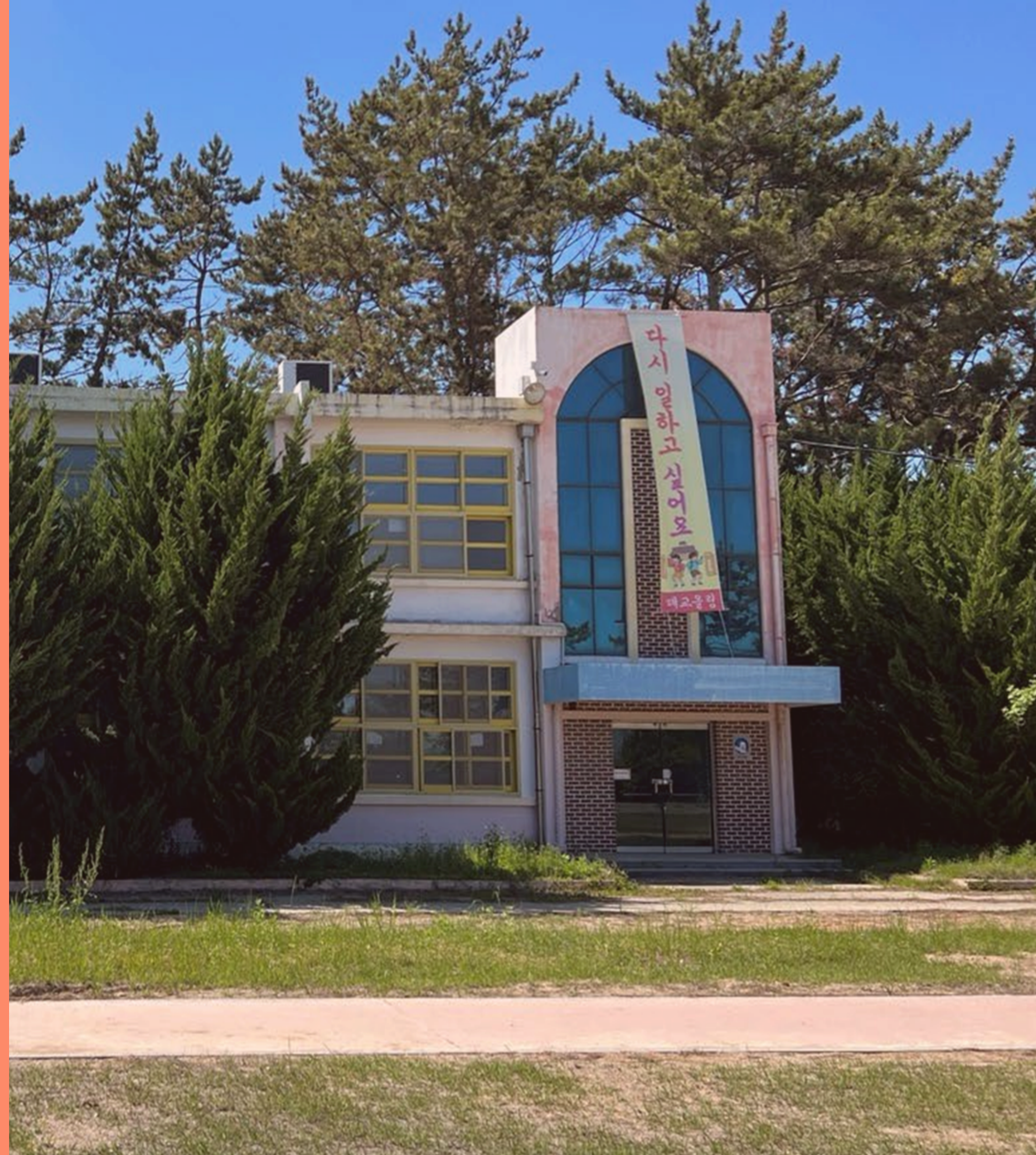
본관 1, 2층에는 별도의 남/녀 분리된 화장실도 각각 마련되어 있어요.



공간소개

본별관동 1층은 농농길 장기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2인의 아티스트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측에는 간단한 헬스기구, 좌측에는 작업장이 있어요.

2층에는 넓은 강당이 있어요. 축제 당일 비가 올 경우 별관 2층 강당에서 공연과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간소개

옥동초는 14,000m²의 넓은 소나무 숲을 품고 있습니다.
처음 학교가 지어진 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가꿔온 곳이죠.

숲에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산책로 곳곳의 공터를
활용해 맘에 드는 곳에 캠핑사이트를 정하실 수도,
작품을 전시/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15번의 본관 뒷편 공간에서는 5/5 축제와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